

수상 소감

## 시집들을 어디로 옮길까 세 번째 바람이 왔으면 좋겠다

신영배

숲에 갔을 때, 꽃나무들이 걷는 길을 따라 걸을 때, 나는 왜 쓰는가, 꽃을 들여다볼 때, 첫 번째 바람이 오고, 어쩌면 나는 시를 쓰면 안 되는 사람일지 모른다, 그런 생각을 했다.

어딘가로 다시 떠나고 있었다. 가방을 싸고 있었다. 무엇을 옮겨야 할까. 어떤 단어, 명사 같은 것들을 붙들고 있었다. 언제든 벗어놓을 수 있는 옷의 모양을 생각했다. 방을 빼야 했다. 그때 수상 소식을 알리는 전화가 왔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창밖으로 손을 내밀어 비를 쥐었다. 손바닥에 물방울 네 개가 놓였다.

연희동 골목을 걸었다. 카페로 들어가 커피를 한잔 마셨다. 비가 그치지 않고, 나는 방에 돌아와 가방을 썼다. 나의 시집 네 권을 가방에 넣었다.

시집이라는 사물을 어디로 옮겨야 하나.

숲이 있다. 나만 아는 숲, 나만 갈 수 있는 숲. 하지만 알 수 없어서 무너지는 숲, 갈 수 없어서 꿈꾸는 숲.

나는 왜 쓰는가, 꽃을 들여다볼 때, 첫 번째 바람이 오고, 어찌면.

첫 번째 바람 속에선 첫 시집 이전의 풍경이 온다. 부풀 수 있는 것들이 아직 부풀다. 탁자에 둘러앉은 나의 젊은 선생님과 온화한 철학자. 우리는 시를 사이에 두고 있었는데... 사이에 시는 그리움이 되었다.

2001년 『포에지』에 처음으로 시를 발표하고 편집위원 선생님들과 만나는 자리. 김혜순 선생님과 황현산 선생님, 그리고 우리들, 그 사이.

봄 내내 연희문학창작촌에 있었다. 홀림 213호. 오후엔 빛이 침대 위로 올라왔다. 베개를 들여다보았다.

아주 많이 눌린 사물, 작가들의 머리에 눌린 베개. 집필실에 계속 놓여 있었다면(연희문학창작촌은 2009년에 문을 열었으니까) 한 십 년은 눌린 베개.

집필 공간에선 늘 악몽을 꾸다. 베개가 우는 꿈, 베개와 함께 소녀가 버려진 꿈을 꾸었다. 악몽은 내가 가진 단어들의 끔찍한 조합일까. 때로 현실과 똑같이 짙혀서 나오는 악몽.

베개를 안고 잠을 잤다. 부풀 수 있는 것들이 부풀었다.

잠과 문장 사이일까.

그녀가 들려주는 엄마 이야기는 이랬다.

“동생이 어디 있지?”

소녀가 물으면 엄마는 소녀의 등에 베개를 얹혀주었다. 소녀는 베개를 얹고 놀았다. 동생이 죽은 줄은 몰랐다.

그녀가 들려주는 엄마 이야기는 또 이랬다.

“엄마, 나 어디 좀 갔다 오려고.”

그녀는 엄마와 베개를 베고 누워 말했다. 엄마는 그곳이 어딘지 모른다. 그녀는 혼자 조용히 입원한 적이 있다. 어느 날 엄마는 그녀처럼 말했다.

“어디 좀 갔다 올게.”

엄마는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곳이 어딘지 모른다.

봄 내내 나는 베개를 ‘물베개’로 옮겼다. 시가 있는 곳. 나는 그곳이 어딘지 모른다.

숲으로 갔다. 새들이 날아가는 길을 따라 헤맬 때, 나는 왜 쓰는가, 새소리만 듣자고 다짐할 때, 두 번째 바람이 오고, 어쩌면 나는 시를 쓰면 안 되는 사람일지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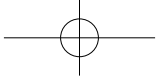
두 번째 바람 속에선 시집들이 계속 늘어난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계속 무거워진다.

나에게 가장 무거운 사물은 나의 시집들. 옮길 수 있을까.

구조를 가지게 되면 거기에 엉켜 들어가며 실패를 모르는 시들이 있다. 시집 속의 시들이 그렇다. 시집이라는 틀의 속임수랄까. 이것을 고백하기 위해선 시집 속에 구조를 허무는 무엇을 놓아야 한다. 무엇. 혹은 무엇의 리듬.

실패라고 모든 시들을 고백해야 한다.

무거움을 옮겨야 한다. 새로 써야 한다.



베개를 ‘물베개’로 옮긴다. 베개를 새로 쓰고, 다시 새로 쓰고, 다시 새로 써야 할 곳으로, 새로 쓰고, 물 쪽으로……

어떤 사물은 어둠 쪽에 있다. 어둠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어떤 사물은 폭력 쪽에 있다. 사람에게 향한다. 슬픔 쪽에서 사물은 움직이지 못한다. 사람을 붙들고 있다. 이게 단어 이야기라면, 말(언어) 이야기라면, 시인은 세상에 있어야 한다.

사람 쪽으로 단어를 옮기는 이야기, 사람 쪽으로 말을 밀고 나가는 이야기, 사람에게 향하는 시.

물은 방향일까. 움직인다. 어둠의 다른 쪽으로, 폭력의 반대쪽으로, 슬픔이 굳지 않는 어느 쪽으로, 물은 움직인다. 사물에 그 물을 갖다 대는 게 ‘물사물’이다.

걸레를 ‘물걸레’로 옮기고, 고무줄총을 ‘물고무줄 총’으로 옮기고… 이 시 쓰기는 말이라는 현실의 벽을 흔들 수 있다. 사회라는 거친 벽돌들의 방향을 돌릴 수 있다.

물은 꿈일까. 부풀 수 없는 것에 물을 대는 일, 불가능한 것에 꿈을 대는 일. 시 쓰기의 전부다.

달빛 아래에 사물들과 여자들이 있다. 사물들은 폭력 쪽이고 여자들은 다친 몸이다.

달빛이 맑고 눈물로 옮겨진 나의 물사물, 물안경. 나는 물안경을 쓴다.

다시 달빛 아래에 사물들과 여자들이 있다. 환한 물사물들과 환한 여자들의 몸이다. 물사물들의 낮선 움직임과 여자들의 말 풍경이다.

물안경이 숲에 놓여 있다. 어딘가 소란스럽고 부드러운 몸짓, 여자들이 사물을 나른다. 우리는 숲에서 만난다. 나는 물안경을 쓰고 여자들의 말을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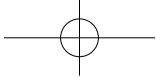
소녀가 엮어 키우는 베개, 처녀가 젖을 물리는 베개, 노파가 다리를 벌리고 낡는 베개, 말을 놓아버린 나무들이 '물베개'를 안고, 여자들은 '물송이 물송이' 입을 벌리고, 죽은 숲이 깨어나는 꿈.

물사물의 꿈은 생명 쪽이다. 환상 속을 오래 지나더라도...

숲으로 갔다. 세 번째 바람이 왔으면 좋겠다. 알 수 없는 나무들 사이일 때, 어딘지 모를 꽃을 들여다볼 때, 나는 왜 쓰는가, 스러지는 몸을 볼 때, 어찌면.

구조를 허물고 물의 몸을 가질 것이다. 그 몸마저 스러지는 말의 빛을 볼 것이다. 새로 써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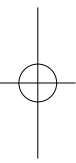
세 번째 바람 속에선 꿈에 만나는 시, 다 잃고 가질 수 있는 시, 단 한 번의 시.



시집 옮기기. 어딘가로 다시 떠나고 있었다. 나는 ‘혼자’를 어디로 옮겼었나. 돌아와 다시 어디로 ‘혼자’를 옮기려 하나. 첫 번째 여자가 장롱에서 뛰어내렸다. 두 번째 여자가 여섯 시 방향으로 다리를 벌렸다. 세 번째 여자는 피아노를 끌었다. 네 번째 여자는 이미 끝을 끌고 왔다.

비가 그치지 않고, 나는 창밖으로 손을 내밀어 비를 쥐었다. 손바닥에 물방울 네 개가 놓였다.

물방울 네 개로 가장 슬픈 단어를 옮겨보겠다.  
물방울 네 개로 가장 무거운 사물을 옮겨보겠다.



사람들을 잘 안 만나며 살지만 나에겐 고마운 사람들이 많다. 부족한 나를 온화하게 바라봐주는 사람들. 멀지만 가까운 사람들, 시를 사랑하는 그대들이다.

어느 날 내가 그대들 앞에 물안경을 쓰고 나타난다면, 눈이 반짝인다면, 감사와 부끄러움으로 옮긴 나의 물사물을 봐주기 바란다.

김현문학패, 이 상은 나에게 무겁다. 이 무거운 사물을 어디로 옮겨야 할까.